

광산구, 고려인문화관 품고 '글로벌시티' 힘찬 날갯짓

국내 최초 '고려인문화관' 개관...역사유물전시·주민소통공간 상생·화합 가치 구현...월곡동 중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의 삶과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차별화한 도시 브랜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고려인 이주민이 많은 월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앞세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려인 관련 문화시설인 '월곡 고려인문화관'을 개관하는 등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구현한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춰 나가고 있다.

'월곡 고려인문화관'은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점 공간이다. 국내에 고려인들이 정착해 사는 곳은 많지만 '고려인마을'의 특성을 갖춘 곳은 광산구가 유일하다. 광산구 거주 고려인은 지난해 말 기준 5000여 명에 이른다.

고려인 집성촌이 광산구 월곡동에 형성된 배경에는 고려인 동포와 공존하려는 광산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힘이 컸다.

특히 광산구의 고려인 동포 지원 정책에 따라 고려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시설도 그동안 많이 생겨났다. 광산구에는 고려인 동포를 집중적으로 돕는

종합지원센터, 자녀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진료소, 미디어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광산구는 고려인 역사를 중심으로 고려인이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고려인문화관' 건립까지 추진하게 됐다.

광산구는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계기로 고려인마을을 종합지원센터와 인접한 곳에 건립 공간을 마련했다.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일궈 나가는 마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고려인마을,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등과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했다.

이를 통해 역사유물 전시공간과 주민소통 공간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문화관의 기본 틀로 결정했다. 문화관 위탁 경영은 2만여 점에 이르는 희귀유물을 소장한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맡았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공유카페, 고려인 강제이주역사를 담은 상설전시실과 중앙전시실을 마련했다.

이곳에선 3·1독립만세운동 제4주년을 기념해 고려인들이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세운 고려독립선언

기념문 사진 등을 전시한다.

2층은 국가기록물 전시실, 특별전시실 등을 갖췄으며, 옥상에는 정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지난 1월부터 사전 운영이 시작돼 러시아에 세워진 한인교사 양성 기관인 '고려인사범대'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다. 고려인 문학작품 중 유일하게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한진 희곡 '폭발'(1985년), 우리나라 독립군의 항일운동을 묘사한 작품인 김기철 중편소설 '급각방'(1982년) 등 지난해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된 유물 23점도 만날 수 있다.

고려인 역사문화 탐방의 거점이 문을 열면서 월곡동의 특색과 매력은 한층 깊이를 더하게 됐다. 이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려는 광산구의 시도 역시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광산구 고려인마을은 또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하는 '월곡동 고려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선·이주민 어울림 플랫폼 ▲취약계층과 이주민 나눔하우스 ▲글로벌 테마 마을 조성 ▲생활환경 정비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마중물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번 문화관 조성 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부지 매입이 이뤄졌다.



김삼호(왼쪽) 광산구청장이 지난 4월 고려인마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고려인마을은 다른 곳에 없는 광산구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고려인문화관 개관은 '월곡동 고려인마을 도시재생'의 완성도

를 높이고, 월곡동을 대한민국 관광자원으로 우뚝 세우는 출렁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마을 곳곳서 '오월정신 기억'

첨단1동 주먹밥나눔·사진전, 본량동 5·18 걷기 챌린지 등 행사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산구 곳곳에서 오월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광주 광산구 첨단1동(동장 한현태)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해 지난 18일 주먹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첨단1동 통장과 사회단체 대표, 직원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눴다. 첨단1동은 21일까지 '오월 정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 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전을 관람한 시민들을 위해 '나에게 5·18은 다.'라는 내용으로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했다.

앞서 17일에는 1980년 5월 광주를 되새기는 직원 연찬회도 진행됐다. 광산구 본량동에선 18일부터 27일까지 '5·18민주화운동 기념 걷기운동 챌린지'를 운영한다.

'오월주먹밥'으로 80년 5월 광주를 알리고 있는 본량동조합의 후원으로 5만1800보 걷기(1일 8000보 제한)에 성공한 시민 10명에게 선착순으로 '카페분방' 이용권을 증정한다. 광산구 걷기앱인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행복오솔(로) 걷기 광산' 커뮤니티 '본량동' 그룹에 가입하여 참여하면 된다.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 '행복오솔 걷기 광산'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21일까지 '오월 정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광산 ON-AIR, 행복오네요'

문화예술 플랫폼 스튜디오 개관...27일까지 '나는 80년...' 행사

광주 광산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및 공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을 선보인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광산문화예술회관(이하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광산 ON-AIR, 행복오네요' 스튜디오 개관식을 가졌다.

광산구는 올해 초부터 광산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105㎡)에 밴드공연 등 규모 있는 공연 촬영이 가능한 A스튜디오와 토크쇼 등 소규모 공연 촬영이 가능한 B스튜디오 공간을 조성했다. 실시간 온라인 송출도 가능하며 조명, 음향, 촬영, 편집시설까지 갖춰 수준 높은 공연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광산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의 활로를 찾고자 스튜디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누구나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튜디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광산 ON-AIR, 행복오네요' 개관과 함께 광주 오월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를 마련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8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5시 18분 광주 청년예술인들이 부르는 민중가요를 광산구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유튜브로 송출한다. 기타리스트인 박성연을 주축으로 광주의 청년 13명이 모여 오월의 노래2,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기존의 민중가요와 창작곡 10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ON' 연계 정책발굴 경진대회...20일~6월21일

광주 광산구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광산구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산ON' 앱과 연계한 정책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광산ON의 정책제안 코너를 통해 구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여대상은 거주지 관계없이 구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대회기간 동안 스마트폰 앱 광산ON을 설치한 후 '정책제안' 메뉴에서 제안하기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1명)은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2명은 각 50만원, 장려상 5명은 각 10만원을 받는다.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1차로 자체 심사를 진행한다. 1차 통과자 15명에 대해서 광산구 정책기획단 등이 별도로 서면심사를 벌여 최종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광산ON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제안 시 공유할 수 있는 푸시 기능 추가, 로그인 절차 간소화 등 개선 작업을 마쳤다. 향후 주민총회 주민투표, 각종 설문조사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영구임대 주민 사회활동 촉진수당 지원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늘 행복 공동체사업 '첫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영구임대 늘행복 공동체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사업 참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늘행복 공동체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비갈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웃 간 교류할 성화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송광, 하남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시간당 포인트를 적립, 매월 이에 따른 지역상품권(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첫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작년 활동 내용을 공유했으며, 사업 시작을 맞

아 참여자들은 '약속 퍼포먼스'로 공동체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고 이웃과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다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늘행복 공동체사업은 전국 최초로 공동체 활동 참여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첫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24일에는 하남복지관과 행복드림복지관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덩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